

특
별
기
고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6)

■ 권仁浩 (철학박사, 대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충재 선생 42세 7월에 삼척부사로서 사창(社倉)을 건립하여 백성들의 조적(糶積)을 편리하도록 하였다. ‘사창’이란 흉년이 드는 해를 대비하여 쌀을 간직하던 창고이고, ‘조적’이란 흉년이 들어 곡식값이 쌀 때 관에서 사들이는 것을 적(糶)이라 하고, 흉년으로 곡식값이 비쌀 때 싸게 내다파는 것을 조(糶)라고 한다. 삼척은 지역은 넓어도 백성들이 가난하였다. 백성들이 관청에서 쌀을 사거나 팔 때 높은 고개를 넘고 험한 길을 지나 하룻밤을 자면서 오가는 그 괴로움이 말할 수 없었다. 충재 선생이 부사로 부임한 후에 백성들의 실정을 자세히 살피고 거리의 원근을 헤아려 소란동(疏濶洞)이란 부락에다 별도로 사창을 건립하였는데, 백성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였다.

8월에는 임금으로부터 중국 원(元)나라 방회(方回)가 당송(唐宋) 시대의 율시(律詩)를 뽑아 만든 시집인 영규율수(靈規律髓)를 하사받았다.

9월에는 시(詩)를 지어 고향 선배(11세 연상) 농암(農巖) 이현보(李賢輔, 1467-1555)의 양노 잔치를 축하하였다. 당시 안동부사였던 농암이 중구일(重九日; 9월 9일)에 80여세의 그의 양친을 위하여 안동부 관아에서 양로연(養老宴)을 베풀었는데, 충재 선생의 부친 의정공 권사빈(權士彬)도 초대되어 71세로 이 자리에 참석하였다. 이

날 농암이 지은 시가 있었기에 충재가 차운하여 시를 지어 축하하였다[次府伯李農巖贊輔老宴韻]; 인도오황유이천(人道吾鄉有二天) 우리 고장에 현명한 수령이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 / 능추노노위고년(能推老老慰老年) 어머니 섬기는 마음으로 노인들을 대접한다고 / 칠영향아래의상(接英香惹萊衣上) 국화꽃 향기는 색동옷을 물들이고 / 취모풍경학발변(吹帽風輕鶴髮邊) 모자에 부는 바람은 백발을 스친다지 / 희기인수화기합(喜氣剩隨和氣合) 기쁘고 즐거운 분위기 화기가 넘치고 / 환성종여하성연(歡聲從與興聲連) 찬탄의 소리와 축하의 소리가 이어지네 / 남중차사간증미(南中此事看曾未) 영남에 일찍이 이런 모임 보지 못하였으나 / 하행오친역부연(何幸吾親亦幸筵) 다행히 내 아버지 낯 또한 자리에 계신다네.

11월 15일에 이른바 ‘신무문(神武門)의 변’, 곧 기묘사화(己卯土禍)가 있어나 남근, 심정, 흥경주 등의 무리가 밀계(密啓)를 하여 정암 조광조, 음에 이자, 충암 김정 등을 체포하도록 하고 큰 옥사를 일으키자, 한 시대 어진 선비들이 학교의 도화정지로 세상을 개벽하고자 한 것들이 무산되고 고통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충재 선생도 체포 구금되었다가 결국 파면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후 15년 간 재야 산골에서 첩거하였다. 12월에 정암이 전라

도 능주(綾州; 현 화순군 능주면)에 귀양 갔다가 끝내 사사(賜死)되었다는 부음을 받고 통곡하였다.

43세 때(1520년) 정월에 관직의 직첩을 빼앗는 탈고신(奪告身) 삼등죄를 받았다. 이 때 안동에서 북쪽 90리 산골인 내성현(乃城縣; 현재 봉화군 유곡 종가 터)에 자리를 잡고 이사하였다. 충재 선생은 세상을 잊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 살 작정이었고, 마침 선비(先妣)의 묘소가 인근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절친한 지기인 음애(陰崖) 이자(李祚)에게 편지를 보내 술을 삼가 하도록 충고하였다. 식년문과 장원급제 출신으로 기묘사화 때 한성판윤, 형조판서, 우참찬이었던 음애도 충재 선생과 같이 인품이, 도학의 이상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면서도, 성품이 온유하고 교제가 넓어 온건한 개혁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다행히 큰 화는 면했으나 삭탈관직 당하고 음성, 충주 등지에서 은거하며 세상을 등지고 독서와 시로 소일하였다. 나라를 생각하고 걱정으로 마음이 상할 때마다 술을 마시며 세월을 보냈다. 어떤 때는 얼룩씩이나 계속해서 마시면서 가슴속의 울분을 끌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고, 술을 즐기던 충재 선생도 걱정이 되어 편지를 보내 경계를 한 것이다.

충재 선생 44세 때(1521년,辛巳) 충암 김정이 22세로 증광문과에 장원급제하여 기묘사화 때 흥문관 부제학, 이조참판, 도승지, 대사헌을 거쳐 형조판서로 있다가 금산에 유배되었다가 진도를 거쳐 제주도로 옮겨져 갇혀 있었는데 송사면(송익필의 부)의 무고사건(신사무옥)으로 여러 사람이 엮여져 이 때 사약을 받았다. 충암의 부음을 듣고 통곡하였다.

충재 선생 49세 때(1536년) 봄에 집 서쪽에 자그마한 서재를 짓고 당호를 ‘충재(沖齋)’라고 써서 붙였다. 일명 한서당(寒栖堂)이라고도 하였다. 또 서쪽 바위 위에 청암정(靑巖亭)을 지었고, 동문 밖에 물이 맑고 깨끗한 바위와 함께 그윽한 경치에 축대를 쌓아 은둔하여 수양하고자 하였다. 뒷날 선생의 큰아들 권동보(權東輔, 호는 정암靑巖, 1517-1591)가 선생이 평안도 삭주로 귀양 가서 1년 만에 졸(卒)하자 사삼시 직장(宗7冊)을 사퇴하고 20년간 두문불출 하다가 선조(宣祖) 초년에 영의정 이준경(李濬慶, 호는 동고東阜, 1499-1572) 이하 많은 이들이 기묘명현과 특히 충재 선생의 억울한 부음을 풀여주도록 계청하여 죄명이 탕천(蕩濶)되고 복관되자, 청암도 벼슬길에 나아가 경상도 초계(현 합천)군수로 있다가 곧 사퇴하고 전원으로 돌아와 이곳에 석전정사(石泉精舍) 짓고 산수를 즐기며

지냈다. 충재 선생의 만형인 야옹(野翁) 권의(權樞, 1475-1588)는 의흥(경북 군위)현감을 지냈는데, 효도와 우애에 힘써 수양하였으며 문장은 이취(理趣)를 숭상하여 문이재도(文以載道)를 이루며 필법도 훌륭하였다. 선생과 함께 백운암에 올라 수십 편의 시를 주고받았다.

충재 선생 52세 때(1529년) 6월에 선생의 막내아우인 제촌(齋村) 권장(權樞, 1489-1529)의 41세로 죽음에 통곡하였다. 제촌은 성품이 온화하고 두터우면서도 강직하고正大한 기상이 있었고, 기억력이 뛰어나고 학박다식하여 25세에 진사, 31세에 식년문과 응과에 급제하였다. 곧 한림에 선임되어 들어가 흥문관 정자 경연청 사경을 배수하였고 기묘년에는 화담 서경덕과 청송 성수침과 함께 현량과에 천거되기도 하였으나 기묘사화로 비분강개한 나머지 술을 통용하여, 선생이 걱정하여 자제를 타 일렀으나 끝내 심화와 병을 얻어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죽자, 선생은 “그가 때를 잘못 만나 역량을 크게 발휘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더욱 애통해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특별연재

국헌공 권轼과 漢文小說

申海鎮(전남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1. <강로전>

번역과 주석

동사잡록본 <강로전>

<지난호에 이어서>

그리고 출병할 것을 급히 청하는 상소는 2,3자를 넘어서 십 차에 이르렀다. 지금도 오랑개 궁중에는 ‘강홍립이 간(諫)하기 위해 올린 문서라는 것들이 쌓여 책을 이를 만큼 된 것’이 있다고 사람들은 모두 전설처럼 얘기하곤 한다. 누르하치는 홍립이 스스로 조선의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을 보고는 내심 화가 나서 끝내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홍립은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만났지만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없음을 탄탄하였고, 죽고자할 만큼 분개하였다.

16

병인년(인조4, 1626) 가을, 누르하치가 영원위(寧遠衛)를 침공하였지만 패하여 돌아가는 도중에 죽었다. 그의 젊은 아들 흥태시(洪太時)가 재위를 이어 받았으나, 새로이 즉위하여 지원 세력이 없었음에 조선(東國)과 우호 관계를 맺고자 하여 홍립과 의논하니, 홍립이 말하였다. 조선의 임금과 신하들은 입술과 이빨 관계처럼 명나라(南朝)와 매우 밀접한 사이인지라. 일개 사신(行李)을 파견하여서는 시간만 들일 뿐 강화를 맺기는 어려우니, 수만 명의 철기병으로 싸운 다음에 강화를 도모할만 못합니다. 또한 지킬 것을 먼저 더럽혀야 함에도, 단지 조선과 강화를 맺고 명나라와 싸운다는 계획은 큰일을 이루지 못 하게 하는 것이니, 참으로 한스러워 할 만한 것입니다. 조선을 쳐서 얻는 이익은 이전에 많았던 바와 같으니, 청천대 지금 시행해 보십시오. 일이 혹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강화해도 늦지 않습니다.” 태시(太時)가 고개를 약간 끄덕이며 말하였다. “변변찮은 내가 선왕의 대업을 이어받고 선왕을 뜻을 좇아 옛 신하를 기용하려 하오. 선왕께서 선생의 계책을 사용하여 싸움에 이기고 성(城)을 얻었을 때, 선생이 우리나라에 충성하던 모습을 나는 이미 마음속 깊이 새겨 두었소. 지금 조선과 강화하고자 하는 계획은 곧 선왕께서 남긴 뜻이거늘, 조선을 침략하자는 선생의 말 또 이처럼 시종일관 간곡함은 필시 마음에 어떤 다른 생각이 있는 듯하오. 조선과 강화하여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돕고 지내고자 함은 선왕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조선을 침략하여 편호(編戶)시키고자 함은 선생의 계책을 쓰는 것이오. 이제 마땅히 두 가지를 다 시도해 보겠소. 만일 하늘의 도움을 입어 한 번의 싸움으로 결단 낸다면, 장방창(張邦昌)이 자신의 나라를 침략한 적국으로부터 책봉을 받았던 고사를 선생도 이루게 될 것이오, 그러나 선생은 번거롭게 겸손히 사양하는 뜻이 하지 말고 병사를 모두 이끌고 가시오! 선생으로서의 급의환황의 영광이 있고 내가 중원(中原)을 경영하려는 데는 큰 힘을 얻게 될 것이오. 혹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도 조선 국왕과 하늘에 맹세하여 영원히 혈맹의 우호관계를 맺는다면, 동쪽에 대한 근심을 없애고 남쪽으로 중국을 정벌하려는 계획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이오. 이것은 선왕께서 내게 남겨주신 의도 만세토록 무궁한 이익이 될 방책이오. 조선에 출정할 군대의 계량권을 선생에게 맡기니, 지금 가야 하겠으면 힘써 가시오.” 마침내 태시는 두 왕자에게 경기병(驍騎兵) 3만

명을 뽑게 하여, 이 경기병을 받은 홍립이 통솔하여 조선으로 가게 하되, 한운(韓綱)은 앞으로 나아가서 길을 안내하도록 하였다. 막 떠나려 할 때, 태시는 홍립을 잠실로 불러들여 손수 금 인장(印章) 한 개를 건네주면서 말하였다. “선생은 떠날 때 지니고 가시오.”

홍립은 가까이에 다가가 두 손으로 받아서 인장에 새겨진 글을 보고는 마음속으로 놀라고 기뻐하며, 즉시 무릎을 꿇고 아뢰었다. “이는 대사(大事)입니다. 아직은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하고 마음에 은연중 새겨 두겠습니다. 대사가 이루어지면 삼가 사직(社稷)을 받들어 따를 것이요, 만약 여의치 못하면 강화만이라도 이루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태시가 말하였다. “선생의 말이 옳소.”

출병하는 날, 홍립의 첩(蘇女)이 문 밖에까지 나와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말하였다. “어르신께서 조선으로 돌아가시면 잡은 장차 어찌하여 합니까?”

홍립이 말하였다. “잠시만 마음을 편히 하고 있소. 그대를 마땅히 왕비로 맞이할 것이니, 잠시 동안의 이별에 부질없이 슬퍼하지 마오.” 한운이 홍립에게 말하였다.

“저와 영공은 모두 부모를 잃어 하늘에 사무치는 설움과 복수할 거사를 가슴에 품고 있으니. 이번 결연에 그들을 모조리 처단합시다.”

홍립이 말하였다. “이번 일은 내가 밤낮으로 절치부심(切齒痛心)하고 있었던 것이네.”

이어서 오랑개 장수와 약속을 하였다. “오늘 이 출병에서 우선적으로 펼쳐 보여야 할 것으로 위력만한 것이 없으니, 대량으로 살육과 약탈을 행하여 한양의 서쪽을 철저히 유린하고 텅 비게 한 후에라야 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랑개 장수가 말하였다. “살육과 약탈을 거리낌 없이 하는 것은 우리 병사들이 잘 하는 일이니, 어찌 마음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17

정묘년(인조5, 1627) 봄, 밤에 의주(義州) 습격하여 성을 넘어서 갑자기 쳐들어오니, 변란이 뜻밖에 일어난지라 사람들이 모두 놀라 뿔뿔이 흩어졌다. 홍립이 급히 오랑개 병사들에게 팔면(八面)을 에워싸게 명하니, 마치 낙엽을 쓰는 바람 같고 고기를 잡는 통발 같았다. 눈을 부릅뜨고 어금니를 딱 깨물며 아무런 거리낌 없이 도살하는데, 날카로운 칼이 무수히 난무하자 붉은 피가 치솟고, 사람마다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며 울부짖었다. 또 어린아이들을 몰아쳐 잡아서는 빈 항아리에 거부로 처박도록 명하니, 처박혀서 울부짖는 소리가 시간이 지나서야 잦아들었다. 항아리가 깔나는 곳에는, 짐적물(沈積物) 담은 수부(水釜)가 곳곳마다 퇴비무덤처럼 가득하였다. 길바닥에 거꾸러진 시체들은 모두 참나무 못을 사용하여 그 등에서 배를 관통시켜 땅에까지 박았으니. 잔혹한 참상은 차마 말로 다할 수 없었다. 이 날, 성 안의 남자는 노소를 막론하고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었으며, 부녀자와 재물은 남김없이 모조리 약탈당하였다. 비록 옛날 선비들의 일족인 탁발(拓跋)이 남서(南徐)를 도륙하고, 흥건적(興斤賊)이 고려의 송경(松京)을 잔혹하게 학살했다지만, 이 날의 참혹함과 더러움을 넘기에는 오히려 부족했다.

<다음호에 계속>

道山學叢書

十七世紀의 政治社會的 狀況과

17세기 정치사회적 상황

晩悔·炭翁의 歷史的 位相

만회 탄옹 역사적 위상

李佑成 (성균관대 명예교수)

<지난호에 이어>

論道山之學

1. 仁政德治의 ‘王道’를 주장함

“셋은 大中至正의 도로써 스스로를 책하는 것이다. “즉 임금에게 항상 “편벽되거나 기울지 않고”, “조금도 사사로운 뜻이 없는”, “大中至正之道”로써 자신을 바로잡고 스스로를 책하며 곳곳에서 품소 모범을 보일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하면 “즉 大臣이 공도를 넓힐 수 있고 近臣이 직도를 떨칠 수 없으면 조정은 바르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고 하였다.(同上) 둘째는 조정은 “아직 어지럽지 않을 때 다스림을 도모하고 아직 위급하지 않을 때 안정을 도모할 것”과 “內治가 이미 다스려진 즉 外患이 스스로 물러나고”는 다스림의 요체를 강구해야 한다. 권득기는 국정을 잘 다스리고 사회의 危亂을 방지하려면, 조정은 마땅히 먼저 “未亂而圖治, 未危而圖安”의 “制治之要”를 강구해야 한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조정이 곧 잘 다스려 혼란과 폐단이 번지는 것을 면한다면, 즉 위험이 안정으로 바뀌게 되니 “즉 항상 다스려지고 항상 안정되어 危亂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同上)”여기에서 권득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安危治亂 相爲倚伏(同上)”이라는 변증적 관점을 내놓았다. 그는 “亂은 다스림에서 일어나고 위험함은 안정에서 일어난다.”고 여겼으니, 곧 자연계의 陰陽 理氣가 서로 쇠하고 성하는 규율과 같이 “한겨울이 陰氣를 막으나 한줄기의 陽氣가 날에서 발생하여 한여름에 이르러 광대해지니 땅속에서 음기가 성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숨어들기도 한다(同上)”는 것이다. 이미 국가의 안위차이가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일체가 된다면 조정은 곧 태평함에 안심하여 잠복하고 있는 危亂의 화근을 망각할 수는 없다. 그렇지 않으면 즉 “危亂必至”란다. 만일 “昧於危亂”하여, 다스림을 도모하지 않으면 즉 “滅亡必速”한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권득기는 “安危治亂 相爲倚伏”이라는 변증관점으로 국가의 성쇠와 흥망의 변화를 관찰하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未亂而圖治, 未危而圖安”이라는 “制之要”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것은 매우 탁월한 식견이자 심오한 사상적 철학 견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 그는 또 이전의 국가가 당했던 엄중한 외환의 심각한 교훈을 통해서 “內治既修, 外患自屏”이라는 “制治之要”를 내놓았다. 권득기는 외환을 방지하려면 “內修而外攘”이라는 근본을 다스리는 방침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즉 먼저 국가의 내정을 잘 다스리는 것에서 착수하여 부국강병을 이루면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외환을 방지하고 막는 근본대목으로 “自修而人不侮者, 道之本也(同上)”이다. 이른바 “수도를 막는 방책에는 혹은 화의하고 혹은 싸우는 것이 있으며, 오랑개를 다스리는 길은 혹은 죽이고 혹은 어루만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물론 임시적인 대책일 수 있었으나 결코 모순을 해결하는 근본 방법이 아니며, “隨患而隨救者, 事之末也(同上)”이다. 그러므로 그는 “외적을 물리치는 공을 이루려면 반드시 내부를 먼저 다스려야 한다. … 이란바 內修之實이란 內治가 다스려지면 즉 외환이 스스로 물러난다는 것이다. 내치가 뒤지지 않았는데 외적을 물리치는 공을 이룬다는

것은 아직 듣지 못하였다.(同上)”는 것을 매우 강조했다.

셋째는 朋黨之爭을 타파하는 것이다. 宣祖때부터 黨을 결성하는 풍조가 흥기한 이래로 士林 사이에 이익과 정경이 같이 많음으로 인해서 무리를 불러 모으고 끼리끼리 함께하니 당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때에 바로 유가의 禮說견해가 나누어져 종종 당파투쟁의 여론도구가 되어 조정은 혼란해지고 危殆가 심해졌다. 권득기와 권사부자는 이에 깊이 느낀 것이 있어 조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朋黨의 다름을 없애야 한다고 여겼다. 그들 부자는 일상사에 있어 외리를 중시하여 親疏와 파벌을 나누지 않고 초연히 스스로를 지키며, 또 한 타인을 일물적으로 배척하여 당을 결성하고 무리를 모으는 일을 하지 않았다. 권득기는 “黨原”이라는 글에서 “方以類聚, 物以群分(易·繫辭上)”의 관점을 명확하게 찬동하고 설명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黨을 결성하고 무리를 모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사회현상이므로 허락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그들이 일물적으로 사람들이 당을 결성하고 같은 부류끼리 모이는 것은 반대한 것은 아니고, 당시 당을 결성하는 것이 사리사리를 꾀하여 끼리끼리만 모이고 타인을 배척하는 경향을 반대한다는 것을 표명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가 반대하는 것은, 시비곡직을 가리지 않고 일물적으로 “同黨者” 혹은 “同於己”한 자로써 시비를 판단하는 표준으로 삼아서 “同을 좋아하고 異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同於己”한 자는 “즉 비록 커다란 잘못이 있어도 반드시 그를 보호”하고 “異於己”한 자는 “비록 좋은 것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를 해치는 것이다.”(晩悔集·潛擬卷2)

권득기는 이러한 同朋友異의 옳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 배척하여 말하기를 “오늘날의 당은 즉 모두 군자가 되기에 족하지 않으니.” “소인”의 거동이고 “모두 善同惡異로써 마음을 삼는다(同上)”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세상의 군자에게 훈계하기를 “마땅히 同 로써 당을 하지 말고 반드시 公心無私하고 언행을 취할만한 자로써 당을 해야 한다(同上)”고 하였다. 권시는 또한 비평하기를 “근세의 당론이 사람의 심덕을 손상시킴이 매우 심하다. 비록 周公의 재주가 있더라도 만일 黨論之心이 있으면惡이 힘이 장차 이르지 않는 곳이 없다.”(炭翁集·附錄 家狀)라고 하였다. 또한 이로써 자신과 문생 제자에게 훈계하기를 “절대로 이러한 행동이 있으면 안된다(東槁)고 하였다. 권득기는 또 朋黨의 다름을 끌어버리기 위하여 다시 조정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여, 조정의 行事は 한쪽 필만 듣거나 한쪽만 믿지 말아야 하며 직언과 진간을 주장함으로써 “위로는 공경으로부터 이래로는 百執事에 이르기까지 뜻이 굳고 끈은 군자이고 巧言令色하는 소인이 없음(晩悔集·殿策)을 구할 것을 희망하였다. 그는 만일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면 “즉 서로 스승이 되고 서로 사양하는 기풍이 일어나서, 서로 아첨하여 도당을 맺고 사사로운을 따르는 습속이 사라질 것(同上)”이라고 여겼다. 이를 위하여 권득기는 또 동시에 신하된 자의 책임과 의무를 제시하였으니, “임금을 드러내고 간언을 행하는 밝음으로써 충성을 삼아야 하며”, “남의 마음에 들도록 힘쓰는 계책은 신하의 의무가 아니라.”(晩悔集·潛擬卷1 “論語·八佾”)라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